일거수일투족 닥치는 대로 다 놓아야 한다

☞ 21면에서 계속

니까. 다 바쳐서 일차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소를 조상으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모든 걸 인간에게 바치느냐, 육까지도 피까지도 바치느냐 이런 것도 있는 거지만 사람은 정신을 뺏기고 정신을 먹고 이렇게 살거든요. 정신을 뺏기는 율이 3분의 2는 아마 뺏기고 살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살거든요. 자기 방어를 자기가 못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인공이, 그러니까 자기 몸뚱이는 보이는 거지만 안 보이는 기사가 바로 그 보이는 몸 속에 있거든요. 못났든 잘났든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거고 세상이 있는 거고 종교도 있는 거지, 내가 없는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 나로부터예요. 가톨릭교든지 기독교든지 불교든지 막론해 놓고 주처는 자기한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대 성인들이 말하기를 "야, 이놈아. 너부터 알아라. 너부터 알고 너부터 믿고, 너를 이끌어 나가는 데는 너밖엔 없다. 누가 대신 똥 눠 줄 수도 없고 잠자 주지도 않고 또 먹어 주지도 않고 아파 주지도 않고 죽어 주지도 않고 깨쳐 주지도 않는다. 인간이란 홀로 와서 홀로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누가 행복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빼앗아 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자기가 행복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사는 거고 걱정 없이 사는 겁니다. 진짜로 자기를 리드하는 자기 보디가드가 되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데 자기가 그대로,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아프면 약사보살이 돼 주고, 즉 말하자면 아픈 걸 관하면 그렇단 말입니다. 관하면 약사보살이 돼 주고, 또 일이 안 돼서 자꾸 거기다 관하면 관세음보살로서 응신이 돼 주고, 자기가 용도에 따라서 다 그렇게 돼요. 그리고 또 명이 짧아서 그렇게 관하면 칠성부처가 돼 주고, 좋은 데로 못 가서 관하면 지장보살이 돼 주고, 물에 빠져서 허덕이게 될 때에는 바로 주해신이 돼 주고, 산에 올라갔다 잘못돼서 관할 때는 바로 산신이 돼 준다. 갖은 각색으로 자기에게 닥치고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의해서 용도에 따라서 다 그렇게 해결사…, 해결사라면 이름 자체가 우습지마는 알아듣기 쉽게 하느라고 그럽니다.

부처의 마음은 둥글기 때문에, 너 아님이 없고 나 아님이 없고 이렇게 모두가 둥글기 때문에, 둘이 아닌 까닭에 둥글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둥글고, 마음을 냈다 하면 법이고, 몸을 움죽거렸다 하면 화신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부처님, 법신, 보현신 이런 게 따로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절에는 부처님 한 분만 딱 해 놨잖아요. 부처님 한 분이면 이 세계뿐만 아니라 우주 삼천대천세계로도 다 이게 일체제불이거든요. 일 불이란 말입니다. 일체 법이 한 법이고 한 법이 일체 법이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앞뒤가 끊어진 자리에서 지금 터덕터덕 걷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고 듣고 하는 것도 고정된 게 없이 보고 듣고 하시죠, 모두. 그리고 걸음을 걸을 때에 뒷발은 점점 없어지면서 앞발은 떼어 놓지 않았으니까 없고 그냥 뛸 뿐이죠. 아주 현명하고 정당하고 적절하고, 그거는 조금도 에누리가 없는, 공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부처가 여기 있어도 여러분 대신 깨달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와 내가, 지금 현상의 나, 그게 지금 유체죠. 무심과 유체. 이 유체가 무심을 믿고 유체와 무심이 둘 아니게 콤비가 된다면, 지금도 콤비가 돼서 돌아가고 있는데 본인들이 콤비가 돼서 돌아가는 걸 믿지를 않아요, 그렇게 항상 살면서도. 자기 주인공으로 인해서 자기 육체가 리드가 되고 돌아가는 줄 모르고 그냥 자기가, 그냥 육체가 자긴 줄 알아요. 그냥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를 하더라도 한마음으로 운영을 하려면…, 이게 참,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닌 것이, 자기를 깨달아서 자기 앞에 닥치는 대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자기가 체험을 하고 자기가 걸어가면서 여기 가슴에 닿는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상대방이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 못 하실 때가 있죠. 나도 말 못 할 때가 얼마나 많다고요. 아니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겉 덧갱이로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이것을 안으로 받아들인다면 아주 최고의 자유자재권을 얻는 거고요.

어느 산부인과 의사는요, 또 이런 말을 해요. 애를 많이 유산시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 유산시킨 애들, 또 때에 따라서는 잘못해서 벌어진 예전 일들, 그게 인제 모두 걸리죠. 의사의 마음에 걸려서, 그리고 집안에 분란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걸려서 하루는 그 애들을 천도를 시키려면 어떻게 시키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단을 쳤어요. 미치광이가 되고 싶으냐고. 도깨비 같은 미치광이가 되고 싶으냐고. 남을 도와주고 의사로서 생명을 건지는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약하게, 그렇게 모르게, 그렇게 어리석게 하고 간다면 누구 하나 의사 노릇 할 사람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이 허공에 영이 꽉 찬 거를 영 속에다 넣는다면 그릇이 작아서 못 담기지 않는다 이거야. 다 그냥 영이기 때문에 수만 개라도 영은 영이다 이거야, 하나의. 그러니까 내 주인공 하나면, 거기다 다 관해서 넣으면 그냥,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뭣 때문에 그렇게 그러느냐. 그러한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뭘 하나 죽여도 살생이 되지만 이렇게 배우고 아는 사람들은 살생이 되는 게 아니라 진화시키는 과정이다 이거야.

그래서 오히려 재생을 시켜서 내놓고 그렇기 때문에 뭐, 큰 고기를 죽인다 이러더라도…, 그냥 무턱대 놓고 죽이는 거 말고요, 어쩔 수 없이 죽여야 할 땐 관하고 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어떤 중이 자기 스승이 죽게 됐더래요. 그래서 지렁이를 한 바가지씩 갖다가 소금에다 넣어서 흘러가는 물에 말갛게 씻어서 고아 가지고 쪽 짜고서 찌꺼기는 묻어 버리고 스승에게 먹이니까 딴 제자들이 말하기를 "너는 지옥밖에는 못 가겠다. 그렇게 살생을 많이 하고 어떻게 지옥을 안 가겠느냐."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지옥을 가도 내가 가는데 네가 무슨 참섭이냐. 은사를 위해서 내가 지옥에 간다면 구더기로 태어나도 나는 하등 상관이 없다, 내 스승님만 살릴 수 있다면. 그러나 그것도 그거지만 모두가 둘이 아닌 까닭에 내 몸도 지렁이고 지렁이도 내 몸인데 지렁이를 만 개를 죽였으면 만 개가 한데 합쳐서 한 영이 될 때 바로 재생이 돼서 인간으로 환토를 할 거야. 그래도 내가 살생을 했느냐." 이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꼼짝 못 했대요.

그래서 은사는 은사대로 살리고요. 그 은사는 뭔지도 모르고 "애야, 구수하다." 허허허…. 이 땅 끝에서 허리도 일으키지 못하던 사람이 "아이고, 그게 무슨 물인데 그러느냐." 그러기에 "저 산에서 자라는 뿌리입니다. 그걸 고았더니만 그렇습니다." 그랬대요. 그렇게 갖다 먹여서 건강하게 해 놓고선 그 참, 보이지 않는 부처님한테 칭찬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른답니다. '선자야, 선녀야! 참 착하고 착하구나!'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융통성이 제일 첫째다 이거야, 융통성이. 곧이곧대로 하다가는, 때에 따라서 형제들이 많다면 이쪽 형제가 "으이그, 저 형님은 뭐 어쩌고 어쩌고…." 욕을 했을 때 고대로 갖다가 일러바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쪽에서 이런 말을 했으면 저쪽에 가서는 "아, 이렇게 이렇게 형님을 칭찬을 합디다." 얼른 쉽게 말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저쪽에서 그러면 이쪽에 와서 그러고, 이래야 이게 화목이 이루어지고 '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쟤는 그렇게 생각했다니 내가 참 미안하고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마음이 바뀌질 텐데 그대로다가 옮기면 그냥 살인 나죠. 의절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도 융통성 있게 남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 아니니라 이거야. 지혜이니라.

지금 경중경중 뛰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하하…. 그러니까 진짜 믿고요, 진짜 시도하세요, 그냥. 자기 생명의 근본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몸뚱이가 나왔으니까 내가, 몸뚱이가 지금 리드가 된다는 얘기죠. 자기 영혼의 근본이 없으면 이 몸뚱이가 움죽거리지도 못해요. 송장이 되죠, 그냥.

부인은 남편한테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러운 행동을 하고
남편한테 탓을 하고 원망하지 말고,
남편도 부인에게 그러고,
그렇게 잘했든 못했든 내 탓으로 생각하라.

어느 때 한번 가다 보니까 사람 죽은 걸 봤는데요, 산에서 굴러서 죽은 건지 뭔지 모르죠. 그랬는데 글쎄, 그 영령이 그걸 알면 착이 없이 훌훌 그냥 떠날 텐데 말이에요, 자기 집이라고 착을 갖고 거기 웅크리고 그냥 있는 거예요. 내 집이라고요. 산산조각이 났는데. 이게 사고가 나서 오래되면 그 영이 빠져나가질 못하죠, 대신 누구를 갖다 놓질 못하면.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기가 그냥 사고가 맨날 난다고 그렇게 어느 신도가 말하던데 그것만, 영만 저거 하면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중생도 보이는 중생도, 중생이라는 건 이 중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허리띠 매고. 그러니까 이 중세계에 사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것이 50%라면 보이는 것도 50%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보이는 여러분이나 보이지 않는 여러분이나 똑같이 생각합니다. 측은하고 불쌍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히 끝 안 나고 영원히 이렇게 돌아갈 거다' 이럴 땐 씁쓰름하고 슬프고 그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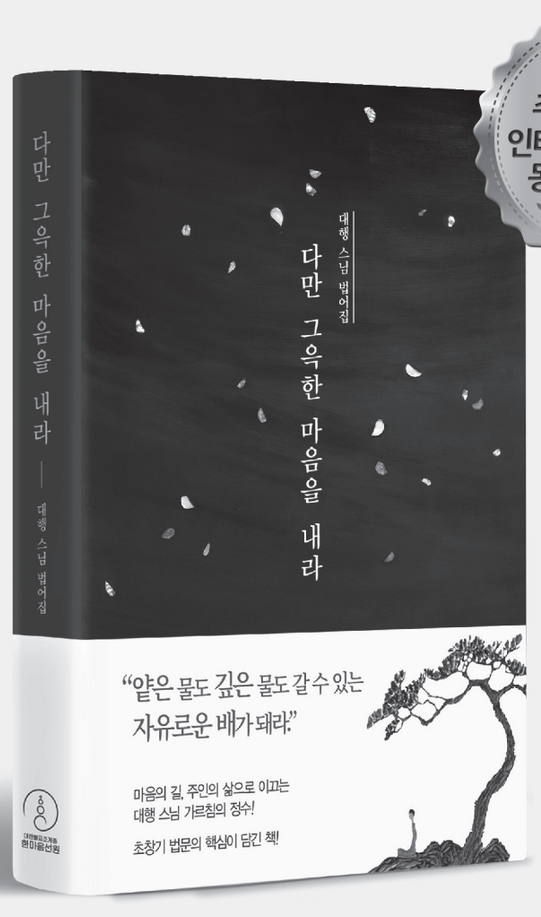
화성처럼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화성에도 사람이 살던 데인데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명이 또 살아나고 있지만 말이에요. 이 무심의 종자를 갖다 넣으면 또 종자에서 싹이 나거든요. 그건 이런 공부 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요량도 큰 지혜거든요. 이게 똑같이 주인공을, 이름을 알아도 요량이 문제예요. 우리가 반찬을 해도, 똑같은 음식 가지고도 맛있게 하는 사람 있고 맛이 없게 그냥 하는 사람 있죠, 간도 안 맞게 하고. 그러니까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 자기 싹이 자기 뿌리를 믿으라는데 왜들 그렇게 그러는지 몰라요. 누구 딴 사람을 믿으래야 억울하다든가 난 믿지 못한다든가 이러지,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영혼의 근본을 믿으라는데, 자기 주장자, 중심을 믿으라는데 어찌 안 믿어요? 그런데 부처님한테 가서 빌라면 그거는 뭐, 천지가 망해도 빌고 그러거든요. 아, 나 참! 그게 도깨비장난과 같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부터 알아라. 도깨비장난 하지 말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 서산 대사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렸다 하는 말이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새가 된 거죠. 새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어째 안 내려와지겠습니까. 만일에 지금 비행기를 운전하고 가는 운전수가 예전의 서산 대사처럼 그렇게 서산 대사가 됐다면, 그 서산 대사가 '아휴, 땅으로 떨어져야겠다.' 그러면 땅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일체가 다 그래요, 보이지 않는 영령들이나 보이는 사람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부인은 남편한테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러운 행동을 하고, 남편한테로 그 탓을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또 남편도 부인에게 그러고, 그렇게 내 탓으로 생각하고 잘했든 못했든 내 탓으로 생각해라. 잘했으면 '감사하구나.' 하고 잘 안될 것 같으면 '되게 하는 것도 너 아니냐.' 하고 놓고, 분이 나걸랑 '왜 분이 나게 하니? 분이 안 나게 하는 것도 너 아니냐.' 이렇게 일거수일투족 다 닥치는 대로 여기다가, 그게 그놈이 하는 거니까 다 놓아야죠. 자기를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가고 오게 하고 만나게 하는 게 전부 그놈이 하는 거지, 그놈 빼놓고 자기 껍데기가, 송장이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대로 고놈이 하는 줄 알고 믿어라 이거야. 믿고 해라 이거야. 믿지 않으면 통하지 않아요.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7년 4월 12일 일반 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